

3》후마 시간강사 해촉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8》리걸클리닉 무료 법률상담



휴 · 복학생 의료회비 납부 안내

신청기간 : 2016.03.01(화)~2016.03.31(목)
신청장소 : 학생의료공제회(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증)
문의안내 : 02-961-0055



네오관 앞 보행 통로
오는 15일 공사 완료

오는 15일이면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네오르네상스관 앞 보행로 공사가 끝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된 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진행됐다. 이번 공사에서는 기존 보행로의 계단과 경사를 제거해 장애인과 노약자도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했다. 이 뿐만 아니라 보행로의 폭이 3m로 확대돼 기존에 비해 약 두 배로 넓어졌다 (사진=최재원 기자, 기사=류제원 기자)

후마니타스 칼리지 최초의 대형 개편, 과학 중핵교과부터 수강신청까지 전면 변화

후마, 교육과정 개편

김도업 기자 wogmd567@khu.ac.kr
박기윤 기자 kyoont7230@khu.ac.kr
유정아 기자 yuangel@khu.ac.kr

#. 2011년 신설돼 출범 6년차를 맞는 후마니타스 칼리지(후마)가 처음으로 큰 폭의 교육과정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학기부터 적용되는 우리학교의 교양교육은 제3의 중핵교과인 '과학중핵교과' 과목의 추가부터 '독립연구', '자유교양학트랙' 등 다양한 개편 요소를 갖추고 있다. 위 사항들은 강좌신청, 졸업학점 등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 신문은 지난해 후마에서 공지한 교육과정 개편 내용과 현재 경과 정도를 비교해봤다.

#중핵교과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인문·사회교양'으로 대표되던 중핵교과에 자연과학 영역이 추가된 점이다. 신설된 '빅뱅에서 문명까지' 수업은 후마 최초의 '과학 중핵교양'이다. 지난해 서울캠퍼스(서울캠) 후마 유정완 학장은 "융합교육을 강조하는 시대인 만큼 과학 과목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16년 1학기 과학중핵교과는 8~90명 정원으로 양 캠퍼스 총 10개의 강의가 열렸다. 유 학장은 "올해 과학 중핵교과에는 신입생만 참여한다"며 "휴학생뿐만 아니라 당장 내년 신입생이 들어올 경우 강좌수를 어느 정도 늘려야 할지 수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이번 학기 서울캠 기준 과학 중핵 수업은 5개 강좌로, 450명이 들을 수 있다. 과학 중핵은 8학기 모두 개설되므로, 단순 계산하면 4년 동안 3,400명이 들을 수 있으므로 올해 서울캠 신입생이 3,147명인 것을 감안하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신입생은 내년에도 약 3천 명 정도가 입학한다. 따라서 내년 과학 중핵 강좌를 추가하지 않으면 강좌 부족 문제 가 발생한다. 유 학장은 "기존 중핵교과를 개설하며 과학 중핵까지 추가로 열 수는 없으므로 적절히 기존 중핵교과 강좌 수를 줄여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어1 강좌도 마찬가지다. 지난 학기 영어1은 83개(서울캠 42개, 국제캠 41개)가 개설됐지만 올해

영어1은 29개(서울캠 8개, 국제캠 21개) 강의만 개설됐다. 반대로 신입생만 들을 수 있는 대학영어는 88과목(서울캠 55개, 국제캠 33개)이 개설됐다. 이 때문에 기존 재학생 중 영어1 강좌를 듣지 않은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유 학장은 "작년 수강신청 최종 결과를 보면 수업인원이 부족해 가장 많이 폐강된 과목이 영어1이었다"며 "행정실이 수요를 예측해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므로 늘릴 필요성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증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 문제는 올해 추이를 지켜본 후 올해 말 구체적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4면으로 이어짐

Newsmaker

학점포기제도 유예 주도한
강정수(경영학 2009)



"행정실은 교육 소비자인 학생을 돋기 위해 존재한다"

이수형 기자 dlitbd112@khu.ac.kr

#. 올해 초 2014년 발표된 학점포기제도 개정안을 전 학번에 일괄 적용하겠다는 학사지원과 측의 공지가 게재됐다. 이에 2014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실효성이 부족할 뿐더러 학사 지원과 측의 공지가 미흡했다'며 크게 반발했는데, 이들 중 개인의 몸으로 직접 경영대학 행정실과 학사 지원과를 동분서주한 끝에 4년의 개정 유예기간을 이끌어 낸 강정수(경영학 2009) 군을 만나봤다.

임 등에서 동일한 사안으로 피해를 본 학생을 모집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의 이런 적극적인 행보는 이 문제를 학생 개인의 학사行政 문제에서 시스템 상의 문제로 공론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행정실은 교육 소비자인 학생을 돋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는 강군은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학생이 행정실 앞에서 을의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부조리다"라고 말했다.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학생이 행정실 앞에서 을의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부조리다"

더불어 그는 "여러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합리적인 논리가 통용되는 우리학교가 자랑스럽다"며 "학생 지원처장님과 총학생회, 대학주보 등 도움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한 뒤 "이 말은 꼭 기사에 넣어 달라"며 미소 지었다. 그리곤 한 걸 풀어진 표정으로 그는 "식사대접하고 싶다는 분부터 함께 시위하자고 말씀하신 분까지 많은 감사한 이들의 응원이 있었다"고 소회했다.

강정수 군은 결코 특별한 이가 아니었다. 다만 그가 분투한 3개월에 모두 박수치는 이유는, 학생 개인에게 부당한 권위를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실례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것이 좋은 선례로 작용해, 학생 한 명, 한 명이 생기 있게 움직이는 건강한 학생자치를 만드는데 양분이 돼주길 기대해 본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칸트의 답변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⑩

임승필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18세기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철학의 관심사를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의 세 질문으로 요약했다. 이 세 질문 중 두 번째 질문인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답하기 위해서 칸트는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이란 개념을 사용한다. 논리학에서 '정언명령'이란 조건적

이지 않은 문제, 즉 어떤 대상에 대하여 단언적으로 주장하는 문제를 뜻하듯이, 정언명령은 조건을 달지 않은 명령을 뜻한다. 칸트는 정



임마누엘 칸트는 "네가 그것을 동시에 보편적 법칙으로 의복할 수 있는 그런 준칙에 따라 서만 행위하라"고 말했다

언명령을 조건부 명령인 '가언명령' (hypothetical imperative)과 비교하면서 설명한다.

크게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상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가언적 명령이나 정언적 명령을 따르고 있다. 이 두 명령은 모두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지만, 행위의 필연성을 다르게 설명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복용할 때, 그가 이런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는 병에서 빨리 낫기 위해 약을 복용할 것이다. 즉, 이 예에서 약을 복용하는 행위는

건강 회복을 위한 수단이다. '의사의 처방을 따르라'라는 명령이 모든 사람을 구속할 수는 없는데, 이 명령은 '병에서 낫기를 원한다'라는 조건을 충족할 때만 타당한 명령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칸트는 행위의 목적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강제하는 명령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런 명령이 바로 정언명령이다. 이 경우, 우리가 하는 행위는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해 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65기 수습기자 모집

모집대상 : 1, 2학년
모집일정(추가) : 3월 17일(수)~23일(수)
접수방법 : 대학주보 홈페이지(media.khu.ac.kr/khunews) 팝업창
특전 : 해외 취재, 장학금 등 ※면접일정 추후 공지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 페터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 ▶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 ▶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시선

사설

후마 개편, 선부른 낙관보다 신중한 대비로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가 교육과정 개편에 돌입했다. 단순 강좌개편에서부터 자연과학분야의 중핵교과 신설에 이르기까지 출범 5년 만에 맞이하는 대규모 개편작업이다. 그 중에서도 새롭게 신설되는 '독립연구'와 '자유교양학 트랙'은 대내외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독립연구와 자유교양학 트랙은 후마가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놓은 아심찬 실험이다. 이 둘은 학생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스스로의 교육을 디자인해간다는 점에서 국내 대학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창의력이나 융합사고력 등이 학생의 교육계에서 중요한 학부인 만큼, 견고하게 짜인 기준 전공의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학문적 소통을 담보할 수만 있다면 이 시도들은 경희 교육철학의 위상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독립연구와 자유교양학 트랙이 '기준 전공의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학문적 소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시도는 미국의 리버럴 아트 칼리지(Liberal Arts College)나 영국 옥스퍼드·케임브리지의 도제식 개인교습(tutorial/supervision) 등과 같은 다양한 사례를 연상케 한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소수 학생에 대한 교수의 직접 지도'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교수와 학생이 일대 일로 만나 교육이 이뤄지는 옥스퍼드·케임브리지의 사례는 물론이거니와, 미국 최고의 리버럴 아트 칼리지로 꼽히는 앤허스트, 윌리엄스 칼리지도 교수 당 10명에서 30명 이내의 학생을 배정하여 토론식 수업과 실험·실습 등을 교수가 직접 지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은 종교, 철학, 사회학, 심리학 등의 인문사회학을 지도받으며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의 기반을 다져나간다.

현재 후마가 선택한 방향은 그동안 우리 대학이 표방해온 교양교육의 철학에 부합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대학의 현실에서 완전히 안정화되기까지는 많은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수 집중 학습과 다양한 커리큘럼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당장 소형강의와 대형강의의 비율이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점, 전체적인 강좌 수가 축소되면서 학생 선택의 폭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강좌'의 개설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공간 및 기자재 등의 기본적 강의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 등 현실은 그리 녹록치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학교는 젊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두뇌에서 뿐 아니라 다양한 커리큘럼과 연구주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 해외사례와 같이 학생 개인의 상황에 맞춘 정책을 기반으로 학생의 창의력과 의욕을 최대한 이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물음들에 대해 자신감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면, 우리는 큰 이상이 결국 구호로서만 그치고 말았던 자율전공학부의 선례를 또 다시蹈습하게 될지도 모른다.

좋은 취지가 좋은 결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 익히 지켜봐왔다. 이제 새롭고 커다란 변화 앞에서, 선부른 낙관보다는 신중한 대비를 이야기 하는 것이 이번 개편작업의 성공을 바라는 진정한 자세일 것이다.

체대, 결산서 공개했지만 학생 여론은 여전히 '싸늘'

미디어 여론동향 2016. 02. 29 ~ 03. 11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체육대학 학생회에서 대자보를 통해 공개한 오리엔테이션 참가비 결산서가 학생들의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경희대_체대, 2016.3.9)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공식 계정 명의로 올라온 해당 글에서 대나무숲 운영진은 '제보시트를 통해 받은 체대 관련 사전'이라며 공고 대자보 사진을 공개했다. 체대 학생회 명의로 작성된 해당 대자보에는 오리엔테이션 참가비 결산서 표와 함께 '위 영수증은 체육대학 학생회실에 보관중입니다'라는 글이 적혀있다. '좋아요', '화나요', '웃겨요' 등 총 119개의 이용자 반응을 모은 이 글에서 학생들은 '왜 영수증을 안 보여주고 학생회실에 보관하는가', '체대 학생회 분들



이주의 주제 - 김밥 납품업체 유통기한 허위 기재

생협은 초기의 '신뢰'를 되새겨 봐야 한다

류제원 기자
jennyoo95@khu.ac.kr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주다. 대학생에게 예외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의 주거문제를 비롯한 삶의 질이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식'의 문제를 학내에서 해결하고 있으며, 특히 생협 매점은 젊은 쉬는 시간과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다.

생협은 조합에서 창출한 수익을 다시 조합원들에게 돌려준다. 따라서 단순한 이윤 추구를 위한 사업체와는 궤를 달리한다. 생협의 최종 목적은 구성원들의 복지 증진이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는 지난 2003년부터 생협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

그런데 최근 생협의 이러한 신뢰성의 기반이 흔들릴만한 사건이 연속 발생했다. 먼저 작년 7월 생협에 김밥과 샌드위치 등 일일식품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유통기한 허위 기재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우리학교 생협은 즉각 거래 중단을 했으나 3개월 이후 해당 업체와 재계약 했다. 학생들이 많이 찾는 삼각김밥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이곳 뿐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생협이 추구하는 바가 단지 '저렴한 가격'에만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지, 혹은 그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 업체와 거래를 이어가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다.

생협이 추구하는 바가 단지 '저렴한 가격'에만

터졌다. 올해 2월, 해당 업체에서 지난해 8월에 생산한 식품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다가 걸린 것이다. 당시 생협 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문제가 된 기간 동안 해당 업체에서 식품을 납품받지 않아 괜찮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생협의 태도는 실망스러울 정도였다.

주머니가 얇은 학생들을 배려해 그만큼 값싼 식품을 공급해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인가? 값이 싸다면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것인가?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태도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당연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오랜 기간 신뢰를 다져온 생협의 본질을 다시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다행스럽게 지난 7일 생협은 '총학생회의 김밥 납품업체 관리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문제가 된 업체와의 거래를 14일 부로 중지하겠다는 입장

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식품에 대해 더 높은 기준을 마련하고, 제품을 심의하는 전담기구 설립을 계획해보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생긴 이후라는 점에서 다소 늦긴 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생협은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단순한 매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캠퍼스에서도 생협의 존재 여부를 두고 오랜 기간 동안 이슈가 되어 왔으며 학내 주요 공간에 생협이 입주해 학생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던 것이다.

생협이 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길 바란다. 생협은 출범 초기에 내세웠던 그들 스스로의 존재 의의를 되새겨야 한다.

께서 SNS를 통해 예산안에 있는 모든 목록을 결제 이후 영수증을 캡쳐 첨부할 것이며, 관할담당 번호도 함께 첨부하신다고 하셨으니 직접 이행하시길 바란다', '한글로 허겁지겁 만든 저것이 영수증인가?' 등의 비판적 반응을 쏟아내며 체대 학생회 측을 비판했다.

집주인과의 갈등 문제를 적은 글이 이목을 끌기도 했다. (#경희대_12817, 2016.3.10) 서울캠 근처에서 자취하는 중, 집주인에게 주방 싱크대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했다는 이유로 20일 안에 방을 비워줄 것을 통보받았다는 글쓴이는 '푸근한 인상을 보고 2년 계약을 했는데 개강한 지 한 달이 다 된 지금 집을 어디서 구해야 하느냐'며 하소연했다. '좋아요'와 '화나요', '슬퍼요' 등 이용자 반응 55개를 모은 이 글에는 25개의 댓글이 달리며 학생들의 공분을 불러 모았다. 학생들은 '민법상 특별법인 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등에 대한 제4조에 따르면 계약 시 2년 미만의 계약이나 계약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경우에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본다'며 적극적으로 법적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유하거나, '회기 이 동네 도둑놈 심보 가진 원룸주인들 전부 잡아다가 벌 좀 받게 해야 한다'고 밀했다.

한 사람의 '날갯짓'은 많은 것을 바꾼다

세시봉

이시은 (편집장)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라는 물리학 개념이 있다. 익히 알려진 대로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과장스런 비유다. 혹자는 이를 두고 미미한 영향력의 확대해석이라고 절하하기도 하지만 이론이 함유하는 내용은 우리가 종종 마주하곤 하는 현실이기도 하다.

지난 1월부터 수차례 회의를 거치며 기자들의 관심을 한눈에 끌어왔던 학점포기제도 이슈 역시 마찬가지다. 많은 논란이 오간 끝에 '4년 유예'라는 결론이 났다. 과거 다른 학자요구안에 밀려 '일괄적용'이라는 허점이 생겼던 제도가 이번 결정으로 학생들에게 좀 더 긍정적으로 돌아온 것이다. 지금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총학생회와 교직원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그 시작은 '한 학생'의 목소리였다. 복학 후 제도에서 문제점을 느낀 강정수(경영학 2009)군은 학교 측의 '이미 이야기가 끝난 사항'이라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생각한 것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개인적 대응은 물론 총학생회, 학내 언론 등에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냈다.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점은 '제도가 갖고 있던 허점'이나 '길었던 논의과정' 같은 게 아니다. 이 사건은 잘못된 학내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의 움직임을 보였던 학생 개인의 '의지'와 이를 도왔다 몇몇 학생기구들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는 사안이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

적극적으로 문제에 '직면' 하자

학교는 수많은 조직이 얹혀 움직이는 곳이다. 제 아무리 유기적인 기관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허점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학생이다. 보통 이럴 때 학생들은 '학교'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개인'의 약함을 느끼며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곤 한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한다고 무언가 바꿔나?", "어차피 학교는 똑같을 것이다" 등. 학교 커뮤니티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쓰쓸함 섞인 자조다.

하지만 이번 학점포기제도 유예로 개인이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움직인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과정 속에서 학생 대표기구와 학내 언론들이 개인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개인의 목소리가 겹치고 겹쳐, 큰 문제를 움직여갈 수 있는 연료가 된다면 개선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갖가지 학사관련 제도는 물론 수강신청, 유사학과 문제, 프라임사업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굵직한 과제들이다. 모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들에 직면하자. 학생이 오히려 문제를 좌우할 수도 있다. 우리가 가진 '나비효과'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혜경 | 편집장 이시은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인터넷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기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교과과정 개편, 시간강사 의견에도 귀 귀울여야

교과과정개편이 여전히 불편한 이유

양윤혁 yangyun0820@khu.ac.kr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의 교과과정 개편에서 개설되지 않은 강의를 두고 시간강사족과 후마족의 갈등이 지난 겨울방학 내내 지속됐다.

후마 소속 시간강사 45명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캠 후마로부터 '교과과정 개편'을 이유로 강의 비개설을 알리는 메일을 받았다. 이후 약 두 달간 관련 논의는 '규정 적용'이라는 후마의 입장과 '일방적인 강의 미개설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시간강사 간의 갈등으로 교내는 물론 학교 밖으로부터도 주목을 받아왔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시간강사의 강좌는 교과과정개편(거리컬럼 적합성, 중복과목 정리, 영역폐지, 영역 내 교과목 조정), 연속 학기 위촉 제한, 강의 평가점수 미달에 따라 비개설 또는 폐지될 수 있다.

후마측, "규정에 의한 진행일 뿐" 시간강사측, "의견 개진 방법 없어"

후마 측은 이번에 개설되지 않은 강의는 타 단과대학과 함께 4년마다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교과과정 개편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시간강사 측은 PRIME사업이나 각종 대학평가에 대비하는 지표가 중요시되는 학내 상황을 고려할 때,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높이려는 대학본부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시간강사들을 하나의 협의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학내 규정 자체의 부당함까지 호소하고 있다.

시간강사 측의 주장에 대해 서울캠퍼스(서울캠) 후마 유정완 학장은 "이번 교과과정 개편은 공식적인 절차(후마니타스칼리지운영개선위원회, 교과과정개편위원회,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인사소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대학의 대외 평가지표 개선 노력 과정에서 부담을 느낀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 압력과는 무관하다"며 합리적인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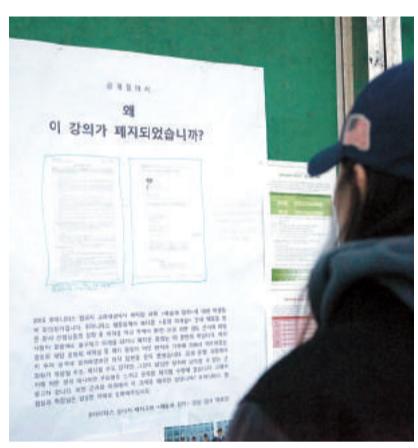
시간강사 해촉으로 대형 강의 개설 또는 총 수강인원 감소로 학생들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시간강사 측의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캠 후마 이성미 계장은 "대학 강의에 관한 부분은 이전에 후마 대학

생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최대 인원을 제한한 바 있으며, 수강인원에서는 전임교원 강의에 적은 인원을 배정했던 관행을 없애는 방법 등을 통해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 말했다.

이번 해촉 과정에서 후마 강좌 '예술과 정치'가 개설되지 않은 채효정 강사는 "시간강사도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라며 "오랜 기간 다듬어온 강의의 질에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개설되지 않은 과목에 안티까움을 표했다. 채 강사는 "현재의 교과과정 개편 논의 기구에는 시간강사의 의견을 개진할 방법이 없다"며 "이런 현실에서 학교가 시간강사를 하나의 통계 대상으로 밖에 인식하지 않는 것처럼 비쳐져 슬픔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 학장 역시 "연속 학기 위촉제한이나 강의 평가 점수가 시간강사들에 한해서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교과과정 개편 자체는 일정한 규정에 의해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후마 이성미 계장은 서면을 통해 "학기당 계약이라는 규정 상 연속 위촉에 대한 어떠한 보장과 약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답한 바 있다.

시간강사 측에서도 후마가 규정 범위를 벗어나는 교과과정 개편이 힘들다는 현실을 알고 있다. 채효정 강사는 "최소한 교과과정 개편 과정에서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당사자인 시간강사들의 입장장을 듣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캠 중앙대자보판에 게재된 채효정 강사의 입장문



▲시간강사 해촉 문제로 인한 갈등의 이면엔 오랫동안 외면해온 '열악한 처우'가 도사리고 있다

열악한 시간강사 처우 개선엔 한 목소리

시간강사 해촉, 3 주제의 시작은

양윤혁 yangyun0820@khu.ac.kr

교과과정 개편은 필연적으로 미개설된 강좌를 담당하던 시간강사 해촉을 수반된다. 이번 서울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교과과정 개편에서는 45명의 시간강사가 강좌 미개설로 '해촉'을 통보받기도 했다. 매 교과과정 개편 과정에서 있었던 시간강사 해촉 문제가 이번에 크게 부각된 것은 어떤 이유일까.

겉으로는 후마교육자협의회(교협)가 출범되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시간강사 해촉'이 외부저널에 기고되거나 교내 대자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탔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간 곰을 대로 꿈은 시간강사의 처우에서 비롯되었단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45명의 시간강사 해촉을 불러온 이번 교과과정 개편에 대해 시간강사 측과 후마 측은 교과목 정리의 타당성을 두고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지만 수 차례 만남을 가진 이후에는 많은 부분에서 그 차이를 좁혀나가는 양상이다. 지난 10일에는 교과과정 개편의 당사자인 대학본부 측(부총장, 교무처장), 후마 측(유정완 학장), 교협 대표 3인(전임교원 대표 김진해, 객원교수 대표 김민철, 시간강사 대표 이병주)이 참석한 회의가 열려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했다.

갈등의 계기가 된 교과과정 개편의 세 당사자(후마, 교협, 후마대학생위원회)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과 현행 관련 규정에 대한 보완점을 들어봤다.

교협 측에서는 교과과정 개편 재검토

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병주(글쓰기2 담당) 강사는 "이번 교과과정 개편은 급하게 진행된 면이 있어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며 "시간강사를 포함시켜 이번 교과과정 개편을 재검토하고 이후에도 시간강사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의사소통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매 학기 기말 시험이 끝나면 도서관 이용이 어렵고, 무선 인터넷이나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에도 제한을 받는 등 기본적인 처우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며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TF 운영도 제안했다.

시간강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의사소통 창구 필요

김진해(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시간강사 처우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던 것이지만 별다른 해결안이 없어 묵혀온 것"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교육 현장 속의 한 주제로서 시간강사를 교과과정 개편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들의 목소리를 구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논의 체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후마 측은 외부에 유포된 후마 대상 비방성 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유정완 학장은 "후마와 교협 간 협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시간강사 개인 SNS나 외부 저널에 올라간 후마 대상 비방성 글에 대해 교협 또는 당사자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그 이후 교협에서 제시한 두 가지 제안(시간강사를 논의 주제로 포함한 교과과정 개편 재검토,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TF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

했다. 후마 역시 시간강사 처우와 관련된 규정상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함께 논의나갈 의지 또한 갖고 있다고 입장문 밖혔다. 유 학장은 "외부에 퍼진 글로 인해 후마 측의 피해가 큰데, 이를 교협 측에 물을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는 방식으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후마 측은 교협측의 주장과 제안이 후마의 교육철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선의'라는 면에서 후마에 도 좋은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후마대학생위원회 역시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후마대학생위원회 측은 "시간강사 문제는 우리학교나 이번 학기에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절차적 문제로만 보기에도 어렵다"며 "다른 학교와도 연대하고 규정과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교과과정 개편으로 강좌 수가 축소되거나 대형 강의가 개설되는 등의 학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생위원회 측은 대학 측과 시간강사 측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비상대책위를 통해 14일 행정실과의 면담자리에서 지난 공개질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본부, 후마, 시간강사 측은 면담과 비공식적 접촉을 가진 이후로는 개괄적인 방향성에 있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세부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한편 후마의 교육철학을 존중하고 후마의 발전을 바라는 당사자들이라는 것은 여타 학교에서도 나타나는 시간강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을 뗄 가능성을 보게 한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admission.dgist.ac.kr

2016학년도 기말학기 대학원 학생모집

21C 세계 융복합 과학기술의 중심, DGIST에서
지식창조형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로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DGIST 입학홈페이지 참조
- 온라인 양식 제출
- admission@dgist.ac.kr으로 송부

문의처 T. 053-785-5146~7 | E-mail admission@dgist.ac.kr | Website admission.dgist.ac.kr

기말학기 전형 원서접수

4.21 Thu ~ 5.5 Thu

전공별 모집과정

전 공	과 정
신물질과학전공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전공의 평가결과에 따라 통합과정이 아닌 석사과정으로 입학가능
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로봇공학전공	석사과정, 박사과정
뇌·인지과학전공	※ 석사과정 학생은 1학기의 수학과정을 마친 후 소정의 철학을 통해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 가능
New Biology전공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수도권 면담형 설명회

- 설명회 개최일정 및 신청관련 공지는 홈페이지 참조
- 장소 : DGIST 서울홍보센터
- 전공별 교수와의 소규모 면담시간 운영(약 1시간 50분 진행)
- 사전신청 필수(신청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 설명회가 취소될 수 있음)

전공 오픈랩

일시 : 4.9(토) 11:30

장소 : DGIST 컨설리언스홀 L29(대강당)

- DGIST 무료셔틀버스 운행
- 기관 및 입학전형 소개, 전공 소개, Lab Tour 등
- 시외교통비 지급 및 간단한 중식, 기념품 제공
- 사전신청 필수(입학홈페이지 참조)

장학혜택 및 특전

남입금 면제	전원 국비장학생 선발
교육 및 연구장려금 지원	■ 박사과정 : 13,680,000원 + @/년 ■ 석사과정 : 7,440,000원 + @/년
기숙사 입주	전원 입주 가능
해외연수 실시	전공별 해외 유수대학연수 지원(존스홉킨스 의과대학, ETH Zurich, UC Berkeley), 국제 심포지엄 참가 지원 등
전문연구요원 편입	박사과정 대상 100% 편입 가능
국가 거대연구과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GIST 융합연구원 및 소속 7개 센터 (DGIST-LBNL 신물질연구센터, 마이크로레이저 융합연구센터, DGIST-ETH 마이크로로봇연구센터, 고신뢰CPS 연구센터, 미래자동차융합연구센터, 태양에너지융합연구센터, 웨일스융합연구센터) ■ 한국뇌연구원 ■ 기초과학연구원(IBS) 신물질화수명연구단

* 전공별 특성화된 장학혜택은 각 전공 홈페이지 참조

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독립연구·자유교양학·신입생세미나, 학생 맞춤형 교육

▶ 1면에서 이어짐

한편 신설된 ‘빅뱅에서 문명까지’ 수업은 기존 중핵교과와 다르게 80명 이상의 대형 강의 수업 형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중핵교과는 토론형 수업 중심이지만 대형강의로 개설하면 취지가 퇴색되지 않겠냐는 지적에 유학장은 “전체 강좌 수를 증설하는데 제한이 있고 수업을 늘릴 경우 전임교원을 넘어 비전임교원까지 구해야 한다”라며 “과학 중핵은 온라인-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교양학 트랙

자유교양학 트랙은 ‘교양 전문 트랙’을 취지로 내세우며 신설될 예정인 후마의 새로운 과정이다. 유학장은 “학위 인정이 힘들기 때문에 트랙으로 신설해 이를 이수할 경우 수료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초의 자유교양학이라는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전공이 목표였지만 이 경우 ‘정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식 학과로의 출범은 힘들다는 것이 후마 측의 설명이다. 트랙은 정원이 없어도 신설할 수 있고 교육부의 승인도 필요없다. 유학장은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며 “교무처와도 신설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유교양학 트랙은 특정 전공보다는 광범위한 전공과 많은 교양을 듣게 하는 특징이 있다. 유학장은 “많은 학생들이 특정학과를 지정해 입학하지만 폭넓은 교양을 듣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있다”며 “자유교양학 트랙의 논의는 3월 말에 시작해서 4월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후마 주도로 진행될 것이며 빠르면 다음 학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입생세미나

서울캠 신입생세미나(신세)가 신설된다. 유학장은 지난번 우리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캠 기숙사 수용률이 낮아 저녁 6시 시작되는 신세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강좌 희망자를 받아 6개 강의가 신설됐다. 유학장은 “국캠은 신세가 운영되지만 서울캠은 지금까지 없어 1학년 때 대학 생활에 대한 지원을 해줄만한 수업이 없었다”며 신세 신설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캠 신세는 전공설계, 인생설계 2가지 목표를 가지며, 수업방식은 멘티-멘토 형식의 48명 정원으로 신설됐다. 유학장은 “올해는 지원한 신입생만 받았지만 호응이 좋으면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서

울캠 신세에 지원한 멘티들은 사회봉사 1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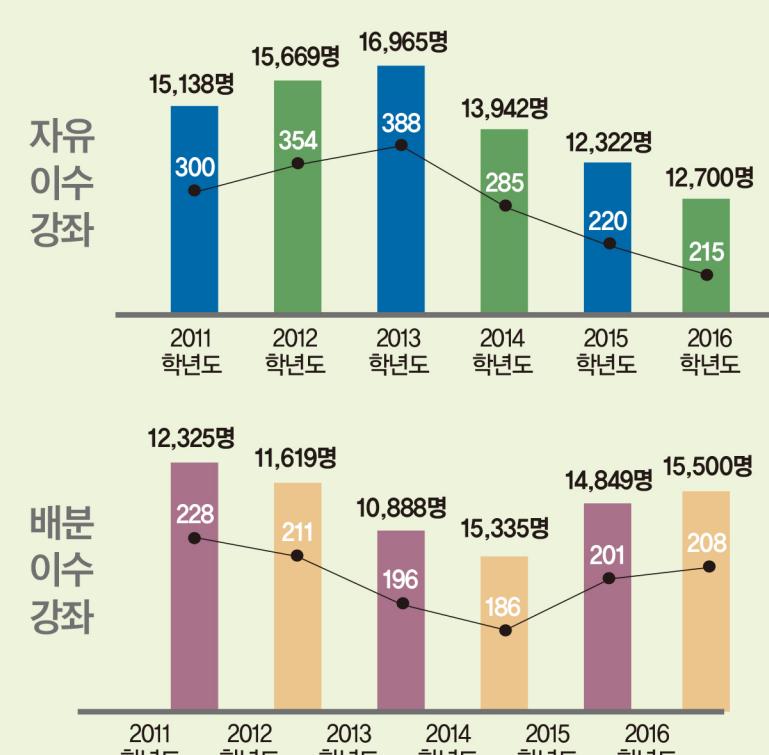
#독립연구

이번에 신설되는 독립연구 교과는 학생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직접 계획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인 학습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12월 유학장은 “3학점으로 개설될 예정”이라 전했으나, 처음 시행되는 것인 만큼 3학점을 인정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 2학점으로 축소해 개설된다. 본래 방학 중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연구를 구상하고지도 교수를 섭외한 후 승인을 받아 2월 19일까지 신청하는 내용으로 공고했다. 하지만 방학 중에 교수자와 학생 간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는 의견을 수렴해, 정정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8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해당 2학점을 정정기간 내내 비워두면 독립연구가 불발될 경우에 18학점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유학장은 다른 과목을 수강 신청해 두었다가지도 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취소하면 되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 답했다.

독립연구 지도교수로는 전임교수와 시간강사 모두 가능하며, 교수 1명 당 최대 4개 주제까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SNS상에서 독립연구 과목이 시간강사의 입지를 더 좁힐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학생에게는 2학점을 인정하나, 교수에게는 0.5시수에 해당하는 강의료만 지급하는데, 교통비나 기타 공간 확보를 위한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시간강사가 독립연구를 맡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후마 행정실 측은 독립연구 과목은 교강사와 학생 간 관심영역이 일치하고, 독립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 것이므로 강의료가 시간강사를 배제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덧붙여 유학장은 이러한 시스템이 음악대학의 개인레슨 형태의 전공설계 강좌처럼 수업시간은 4시간이지만 전임교수에게 0.5시수만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활동비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강사와 전임교수에게 동일한 시수를 인정하며, 독립연구의 개수를 제한하지 않는 현방식에서는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학장은 “독립연구는 소규모로 진행되는데 2시수를 전부 인정한다면 최소 20명, 많게는 100명 가량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3학점에 3시수를 받는 강사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제기도 있었다”면서 “전임교수가 진행하는 ‘논문지도’가 현



(2011~2016 후마강좌 개설 현황)



* 2016학년도 수치는 예측수치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제 0시수인 것과 유사한 경우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학생사회에서는 인원구성과 시간대가 자유로운 수업이라는 이유로 강의실을 따로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개인 연구공간을 갖추지 못한 시간강사들은 추가 경비지출 등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학장은 “현재 후마 행정실 좌측에 위치한 기자재실을 개조해 4개 팀을 동시 수용할 만한 공간을 마련 중”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공간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독립연구는 교양, 전공, 실천, 참여, 창업의 5개 분야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애초 기획의도처럼 2학점 상당의 연구 가치를 갖는 유의미한 주제가 아닌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맹점을 보인다. 유학장은 “독립연구 자체가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과목이므로 주제를 선별적으로 채택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며, “학생과 교수자의 학문적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시범 시행 이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도적으로 점차 보완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우리 신문과 가졌던 지난해 12월의 인터



KYUNG HEE UNIVERSITY

Global Collaborative 2016 Summer Program

“국내외 석학 및 국제기구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세계 여러나라 학생들과의 교류의 장을 경험하세요!!”

- 프로그램 기간
- 개설강의
- 참여대상
- 신청기간
- 장학금
- 문의

- 2016.07.04~2016.07.29, [4주간]
- “Humanity, Civilization and Global Governance”에 특화된 20개 강의(GC홈페이지 참조)
- 국내외 대학(원)생
- 2016.03.14~2015.04.30(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경희대학생의 경우 미래문명원 네오르네상스 장학 신청 가능(추후 공지예정)
- 미래문명원 Tel: 02 - 961 - 0995 Email: summer@khu.ac.kr 홈페이지: http://gafc.khu.ac.kr/gep 페이스북: www.facebook.com/khugc



연재기획

수강신청 대란, 원인은 절대적인 강의 숫자의 감소

데이터로 본 경희

#. 대학주보는 2016년 1학기에 '데이터로 본 경희' 연재를 시작합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은 CAR(Computer Asisted Reporting: 컴퓨터 활용 취재보도)을 통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미디어계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대학주보는 이를 도입하여 교내외의 데이터를 수집, 정리, 분석, 시각화해 깊이있는 기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서는 최근 3년간 전체 강좌갯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수강신청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조명해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연재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재 순서

1. 양 캠퍼스 주변지역 치안범죄 현황
2. 강의갯수 변화 추이와 교원수자로 살펴본 수강신청
3. 프라임 사업 학과별 정원 이동 및 신설과 현황
4. 양 캠퍼스 대학생 주거문제 현황
5. 양 캠퍼스 도서관 관련 데이터 현황

수강신청 대란, 원인은

김규래 기자 rlarbfo41@khu.ac.kr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강의가 총 746개 감소해, 수강신청 대란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학교는 수강신청 기간 동안 학년별 신청과 전 학년 신청 등으로 2번의 신청기회를 부여하지만 이 기간 안에 수강신청을 완료하는 학생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정정기간까지 수강신청을 위해 각 학과 행정실은 북새통을 이룬다. 뿐만 아니라 학교정보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에는 정정기간에 특정 강의를 사거나 판다는 글이 수강신청을 전후해 끝 없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정정기간은 수강하지 않을 강의를 취소하고, 원하는 강의의 잔여좌석이 생긴다면 자유롭게 신청하는 조정기간이지만 수강신청 가능한 자리가 생기지 않자 강의를 매매하는 폐단까지 나타나고 있다.〈대학주보 제1594호 (2015.0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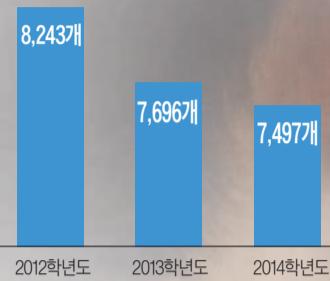
군 휴학 후 이번 학기에 복학한 김권혁 (경영학 2012) 군은 "예전에는 수강신청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강의 부족현상이 너무 심한 것 같다"며 "듣고 싶은 강의는 고사하고 비인기 강의까지 잔여 인원이 없었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강의 개수는 적은데 학생이 강의실을 꽉 채울 만큼 포화상태라서 수업의 질도 좋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수강신청 대란 심해지면서 강좌 사고파는 폐단까지 횡행

강의부족은 김 군의 기분 탓이 아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총 강의 수는 2012년 8,243개에서 다음해 7,696개, 이어 2014년에는 7,497개까지 3년간 746개가 실제로 감소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소형 강의는 대폭 감소하고 대형 강의는 소폭 증가했다. 2012년에서 2014년까지 3년간 20명 이하 소형강의의 개수는 826개, 21~50명 규모의 중소형강의는 79개가 감소하는 동안 51~100명 규모의 중형강의는 145개, 101~200명 규모의 대형강의는 12개, 201명 이상의 초대형강의는 2개 증가했다.

소형 강의가 감소하고 대형 강의가 증가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계산해 보면 실상은 다르다.

전체강좌 갯수 3년 추이



강의 규모 별 세부 증감 현황



* 증감현황은 2012학년도 대비 2014학년도입니다

위의 현황을 토대로, 각 강의별 최대인원을 상정하여 계산해봤다. 우선 감소한 수용인원의 총합은 20×826 (20명 이하 소형강의 826개 감소)=16,520명에 50×79 (21~50명 규모의 중소형강의 79개 감소)=3,950명을 합해 총 20,470명이다.

한편, 증가한 수용인원의 총합을 알아보면, 100×145 (51~100명 규모의 중형강의 145개 증가)=14,500명에 200×12 (101~200명 규모의 대형강의 12개 증가)=2,400명을 합친 16,900명에, 201명 이상의 초대형강의 2개 증가분이 합쳐져 대략 총 17,300~17,400명가량이다.

결과적으로, 감소분 20,470명과 증가분 17,400명의 차이인 대략 3,000여 명이 넘는 강의 수용인원이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강의 수 감소는 타 대학과 비교할 때, 엄청난 규모다. 우리학교 외 서울권 사립대 7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 강의 수가 감소한 대학은 서강대와 한양대뿐이었다. 이들 대학은 각각 452개, 242개가 감소했다.

두 대학은 재학생 규모가 서강대 약 8,000명, 한양대 약 15,000명인만큼 재학생이 25,000명인 우리학교보다 강의 감소

의 체감피해가 적은 상황이다.

이밖에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국외대는 같은 기간 오히려 전체 강의 수가 증가했다. 재학생 규모가 우리학교 다음으로 많은 고려대는 약 2만 명 규모로 우리학교보다 5천여 명 적었지만, 2014년 기준 전체 강의가 7,674개로 동년 7,497개를 기록한 우리학교보다 많았다. 게다가 고대는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370개, 그 다음해 957개의 강의가 다시 증가하여 3년간 총 1,327개가 증가했고, 특히 증가한 강의 중 소형강의가 900여 개로 나타났다. 소형강의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우리학교 현황과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강의 수 증설

하지만 강의와 함께 교원수도 감소

결국 수강신청 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강의 수 증설이다. 하지만 이를 단기간에 늘리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강의와 함께 교원 수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740명이었던 학부 전임교원은 2013년 720

명, 그 다음해 689명으로 줄었다. 그리고 학부 전임교원은 2012년 889명에서 다음해 소폭 증가한 891명을 기록했지만, 2014년에는 829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때문에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을 합친 전체 교원 수를 보면 지난 2012년에 1,629명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1,518명으로 약 100명 이상 줄었다.

2015학년도 전체 개설강의 수는 정보공시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대학주보 측에서 우리학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2015학년도 개설강의 수를 직접 세어본 결과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학자지원과 측은 "강의 개설은 각 단과대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이 매학기 변경된다"며 "음대를 예로 들면 예전에는 1대1 방식으로 실기 수업을 진행했지만 요즘에는 팀티칭 형식으로 뮤지컬 진행한다. 수업 개설 방법을 바꾼 경우 개설강좌 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학생들의 수강신청 대란은 매학기 끊이지 않고 있다.

★ 학군사관(ROTC) 57·58기 모집안내 2016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 지원자격

- 연령: 임관일 기준(만20~27세 이하인 남·여)※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제57기(남·여 모두 가능): 4년제 대학 2학년재학생(5년제 학과는 3년 재학생)
- 학군 제58기(남자만 해당):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는 2학년 재학생)

◆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2016년 3월 1일 ~ 3월 31일
- 방법: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지원 접수]란 이용
- 일정: 1차 필기고사: 4월 2일(토) / 발표: 4월 22일(금)
2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4월 25일(월) ~ 5월 20일(금) / 발표: 6월 10일(금)
- 신원조회: 6월 13일(월) ~ 8월 12일(금)
- 최종합격: 8월 18일(목)
- 문의처: 학군교 (043)830-6031



육군학생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무크·평생교육·나노학위 미래의 교육은

전문가칼럼 - 무크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IT디자인융합학부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부르던 이 낯익은 동요 속에는 아날로 그 시대 교육의 운영 원리가 놀라울 만큼 학제적으로 담겨 있다. 모든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에(학교종이 땡땡땡), 정해진 장소에 집합하여(어서 모이자), 지정된 교사로부터(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수업을 받는다. 아날로그 시대의 가장 전형적인 학교 풍경이 아니던가. 이것은 근대 산업화로 형성된 공장의 운영 원리가 그대로 교육 현장에 이식된 결과이다. 정해진 출근 시간까지 정해진 작업장에 집합하여 하달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장 노동자의 모습과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모습은 그리 다르지 않다. 즉 학교란 자라나는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예비 노동자들에게 근대 공장에서 요구하는 제반 규율을 선행 학습시키는 공간이기도 했다.

정보화 시대 대학 졸업장

유효성 점검해봐야

그런데 정보 사회의 도래로 오랜 아날로그식 교육은 변화에 직면했다. 온라인을 통한 원격 교육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게다가 온라인 환경은 교육의 개방성마저 촉진시킨다. 지금껏 굳게 문을 닫아걸고 까다롭게 선발한 소속 학생들에 게만 교육을 제공해왔던 대학이 이제 닫힌 문을 활짝 열고 외부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교육에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대규모 공개 온라인 강좌를 지칭하는 ‘무크(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가 그것이다. 무크는 누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세계 명문 대학의 강의를 무료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교육 환경이다. ‘코세라(Coursera)’, ‘에드엑스(edX)’, ‘유다시티(Udacity)’ 등 미국 주도의 글로벌 무크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의 K무크를 비롯해 일본의 J무크, 중국의 쉐탕엑스(XuetangX) 등 국가 단위의 무크도 점점 늘고 있다.

무크의 등장은 급속한 사회 변화와 관련이 깊다.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점점 높아지는데 정작 대학 졸업장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대학 졸업장이 좋은 직업과 안정된 직장을 보장해주던 시절은 끝났다. 취업 기회는 날로 좁아지고 설령 취업을 해도 그 곳이 평생직장이 되리라 기대하기 힘들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대학에서 배운 지식의 유효 기간도 갈수록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알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한국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에 15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우리의 교육 현실을 꼬집은 바 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제 전 세계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으로 해당된다. 과학 기술, 특히 로봇과 인공지능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현존하는 직업들 중 상당수가 가까운 미래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시대, 새로운 교육영역 인정받게 될 것

옥스퍼드대학 칼 베네디트 프레이(Carl Benedikt Frey)와 마이클 오스본(Michael A. Osborne) 교수 연구팀은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20년 이내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MIT대학 에릭 브린볼프슨(Erik Brynjolfsson)과 앤드류 맥아피(Andrew McAfee) 교수도 『제2의 기계 시대』란 책을 통해 “인간보다 더 지적 능력이 뛰어난 인공지능이 출현한다면 단순 직종보다는 고도의 지식 노동이 사라질 위험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이미 언론계에는 기자를 대신해 스포츠 경기 결과나 주식 시장 등향 기사를 작성하는 로봇 저널리즘이 도입되었다. 회계사, 변호사, 약사의 업

무도 점차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해 잠식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진단은 ‘얼마 뒷가사라질 직업을 위해 굳이 값비싼 등록금을 부담하며 대학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기존 직업의 종말과 새로운 직업의 탄생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값 비싼 대학 교육보다는 무료로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찾아들을 수 있는 평생교육이 훨씬 더 유용할 것이다. 무크는 바로 이렇게 직업과 교육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 등장한 새로운 대안이다.

실제로 무크는 구글, MS 등 세계적 기업들과 손잡고 단기간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나노 학위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당연히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채용의 기회가 제공된다.

기존 대학들 중에도 무크에 개설된 과목들을 정규 수업에 활용하거나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곳이 점점 늘고 있다. 이제 학력이나 학벌보다도 무크에서의 교육 경력이 인정받는 새로운 분위기가 서서히 무르익고 있는 것이다.

참여마당

최우승
(지리학 2010)



이번 봄, 모두 연애를 해보자

웬만큼 마음에 드는 이성이 아니고서는 만남을 위해 굳이 집밖으로 나가기 싫었던 계절이 지나고,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찾아오는 사랑을 하고 싶은 설렘의 계절이 왔다. 이상하게도 봄이 되면 웬지 모르게 연애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는가.

이런 기분에 매년 올해엔 연애를 해보겠노라 다짐을 해보지만, 결과는 역시나 꽉이다. 그리곤 그 충격에 나는 외모가 별로다, 매력이 없다며 낙담하는데 그 와중에 설마 애가 연애를 할까싶었던 주위의 인물들마저 연애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보고 있노라면 모종의 답답함이 차오른다.

연애 고수들의 특급 연애비법을 수많이 탐독하고 연애 노하우가 담겼다는 책도 몇 권이나 읽으며 따라해 보아도, 연애 그거 잘 안되더라. 수많은 청춘이 비슷한 경험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매번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연애 잘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꼭 ‘이끌림’이 있어야만 연락과 만남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들이란 저마다 너무나 다양한 개성을 갖고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몇몇 카테고리’로 묶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노릇이다. 이러한데 왜 꼭 ‘처음부터 끌리는 사람’만 찾는가. 결론은, 일단 만나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만나보면 내가 만나는 사람의 매력을 조금씩 발견할 수 있다.

여자들은 살아오면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자신의 매력이 무엇인지 들으면서도 자신이 솔로인 이유를 계속 외모 탓으로 돌린다. 비록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지만, 그것은 상대방에 대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가 나의 매력을 알 수 있을 때까지 만나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는 분명히 당신의 매력을 느끼고는 이끌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느긋한 자세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곧 능력이다. 호감 있는 상대를 만났을 때는 보통 상대방에 대해 안달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도한 적극성이 연출되기 쉽다. 하지만 그 상대방은 그걸 받아줄 준비가 안 되어있다. 그렇기에 절대 부담을 주어선 안 된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면 설령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상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지만 무작정 찍어 대기만 하면 그냥 도끼만 망가질 뿐이다.

물론 기다리는 것은 정말 힘든 과정이다. 하지만 인내가 필요하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를 상대방이 알 수 있을 때 까지 계속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기한은 내가 힘들어 지칠 때 까지다. 자연히 사랑이 식게 되는 시점이다. 누군가는 일주일, 누군가는 한 달 또는 일 년 넘게 기다릴 수도 있다. 이 기한을 넘어서 억지로 참으면 만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온전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없게 된다. 기다림에 지쳐 이미 내 자존감은 나락까지 떨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견디기 힘들면 그만 두는 게 나를 위하고 상대방을 위한 길인 것이다. 사랑도 결국 서로가 행복하자고 하는 일일니 말이다.

자, 이번 봄에는 우리 모두 연애를 해보자. 아니, 진짜 사랑을 한 번 진하게 해보자.

▶1면에서 이어짐

정언명령에서 행위의 필연성은 단지 행위의 준칙이 지닌 보편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형이상학 정초』라는 책에서 칸트는 정언명령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 “네가 그것을 동시에 보편적 법칙으로 의복할 수 있는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던 ‘거짓 약속을 하지 마라’나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와 같은 것이 정언명령의 예다.

정언명령은 칸트 윤리학의 핵심 개념이다. 즉, 칸트 윤리학에서 도덕적 으로 옳은 행위는 정언명령에 따른 행위다. 칸트는 『도덕형이상학 정초』에서 이 세상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한 것은 선의지(善意志)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때 선의지란 정언명령을 따르는 사람의 의지를 말한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선의지의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칸트가 인간의 삶에서 행복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닐까? 실제로 영국의 공리주의 윤리학자 존 스튜어



칸트는 다음 세상에서 인간의 도덕성에 정확히 비례하는 보상(행복)이 주어지리라고 보았다

트 밀은 『공리주의』에서 『도덕형 이상학 정초』에 나타난 칸트의 윤리학을 비판하는 한편, 제라미 벤담의 행복주의를 옹호한다. 벤담은 『도덕과 입법의 원칙 서설』이라는 책에서 유용성을 가진 행위, 즉 개인이나 사회의 행복을 증진시켜주는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런데 칸트 입장에서 보면, 벤담이나 밀의 행위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윤리학은 도덕성의 기초를 가언명령에서 찾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칸트는 도덕성의 참된 기초를 정언명령에서 발견하였지만 그렇다고 그가 행복

에 대한 인간의 관심에 대해 무지했던 것은 아니다. 우리가 충분히 목도하고 있듯,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선인은 불행하고 악인이 오히려 복을 누리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칸트는 이 세상에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세계, 즉 다음 세상에서 인간의 도덕성에 정확히 비례하는 보상(행복)이 주어지리라고 보았다. “단순히 행복해지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행복할 자격을 갖추도록 노력하라!” 이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칸트의 대답이다.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일백원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당신의 헌혈이 누군가에겐 꺼져가는 생명을 살립니다.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안정적인 혈액공급을 위해

지금 가까운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을 방문해 주세요.

문화

“리걸클리닉, 학생들에게 정신적 쉼터가 되도록 할 것”

리걸클리닉 무료법률상담

기호웅 기자 kihodori2@knu.ac.kr

#. 올해 초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산하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이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인 백령도에서 무료법률 상담을 진행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리걸클리닉은 우리학교 법전원 산하의 법률 상담센터로 학교 구성원과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곳이다. 학생들도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우리학교 학생들은 리걸클리닉이 어떤 기관인지 잘 모르고 있다. 우리신문은 리걸클리닉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이동훈 학생(법전원 7기)과 리걸클리닉 범경철 센터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리걸클리닉은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산하의 법률상담센터로 우리학교 학생들이 봉사차원으로 학교 구성원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 및 구조 활동을 진행하는 곳이다. 리걸클리닉에서는 상담 요청에 대해 간단한 법률적인 조언, 고발고소와 관련된 문서 작성 등을 도와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 리걸클리닉 범경철(법학) 센터장은 “리걸클리닉은 법률 상담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봉사할 뿐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훌륭한 실무 경험의 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상담팀 1차 의견서 작성 자문교수 검토 후 최종 완성

지난 2015년에 리걸클리닉에서 진행한 상담은 80여 건이었다. 이 중에서 30여 건은 방학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서 이뤄졌으므로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 진행된 상담은 50여 건에 불과했다. 전체 학교 구성원과 학교 근처 지역사회 주민들의 수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이에 대하여 범 센터장은 “법률문제가 다소 개인적인 일이라 공개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하지만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걸클리닉의 이용률은 저조하지만 우리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우리학교 리걸클리닉 홈페이지(<http://khlc.knu.ac.kr>)에 접속해 양식에 따라 온라인 신청만 하면 된다. 범 센터장은 “상담



① 백령도 무료 법률 상담활동 사진 ② 백령도에서 찍은 단체사진

요청이 들어오면 전화통화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 토의, 관례분석, 법률연구를 통해 1차 의견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검토된 1차 의견서는 자문 교수들의 검토를 거쳐 최종 완성된다. 상담을 신청한 학생은 이 과정을 거쳐 법률자문을 받게 된다.

다만 학생들이 수업과 병행하여 법률구조를 진행하기 때문에 의견서를 빠른 시간 내에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실무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다양한 판례를 살펴보며 상담을 진행해 늦어지기도 한다. 이동훈(법전원 7기) 교수는 “보통 최종 의견서가 종사했던 전문가인 자문 교수의 최종

나올 때까지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며 사건에 따라 길어질 경우에는 한 달이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뢰인이 빠른 상담을 요구할 경우에는 자문 교수가 직접 나서 빠르게 법률상담이 진행된다. 범 센터장은 “가입류 건과 같이 시각을 다투는 사건은 자문 교수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 빠르게 법률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상담을 이용하려는 학생들은 상담원들이 변호사가 아닌 만큼 법률상담 능력에 의문을 품는 경우도 있다. 범 센터장은 “학생들만이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협업에 종사했던 전문가인 자문 교수의 최종

확인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만큼 내용의 전문성이 대해서는 자신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리걸클리닉에는 법전원 학생 뿐 아니라 민법, 형법, 상법, 세법 등 각 분야별 10명의 자문변호사가 편성돼 사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리걸클리닉에서는 법률 상담이 개인에게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한다. 이 군은 “상담을 맡기 전에 의뢰인의 비밀을 지킨다는 서약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범 센터장은 “법률을 담당하는 모든 이들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비밀누설죄를 저지를 것”이라며 “비록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아직 변호사 자격증은 있지만 예비 변호인으로서 이 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어길 시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의 리걸클리닉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주로 가정폭력·이혼·유산상속 등과 같은 가정사에 대한 것을 상담한다고 한다. 하지만 리걸클리닉에서는 성추행, 임금체불 문제, 부동산 임대료 관련 문제 등과 같이 학생생활에 밀접한 모든 문제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이 군이 진행했던 상담의 경우에는 학과 점퍼 하자 문제로 인한 상담도 있었다. 이 군은 “우리학교 어느 학과에서 학과 점퍼에 종사했던 전문가인 자문 교수의 최종

의 하자 문제로 제작 업체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업체가 이를 거부해 소송이 일어났다”라며 “1심 재판 결과 학생들이 승소했던 적도 있다”고 소개했다.

리걸클리닉은 큰 비용이 드는 법률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학생들이나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고 있다.

“센터는 항상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하길 바라”

또한 올해부터 우리학교 근처의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법률관련 교육도 진행한다고 한다. 이 군은 “법률 상담을 통해 보다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참고 넘어가지 말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리걸클리닉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범 센터장은 “리걸클리닉이 학생들에게 영혼의 안식처이며 정신적 쉼터가 되도록 하고 싶다”며 “센터는 항상 열려 있으므로 언제든지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소외자와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리걸클리닉. 그들의 노력으로 우리학교 모두의 법률적 권리가 올바로 지켜지길 기대해본다.

연구개발비(R&D) 부정수급 신고 안내

신고 대상

연구개발비(R&D) 편취, 횡령, 부당집행 등 부정사용

- 연구과제와 무관한 장비, 자사 물품 구입
- 연구기자재, 재료 구입비 부풀리기
- 연구원 하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하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산
-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공동관리하면서 횡령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
- 기존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하는 것처럼 하여 연구개발비 편취 등

신고 상담

전국 국번 없이 ☎ 110

신고 접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 ▶ 홈페이지 : www.acrc.go.kr
-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 팩스번호 : (02)2110-0678
- ▶ 우편·방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신고 처리

자체 조사 후 검·경찰,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이첩

신고 보호·보상

신고자 보호 :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상 : 보상금 최대 30억 원, 포상금 최대 2억 원